

18차 총여학생회 중앙 운영위

꺾 들어가며

어찌보면 너무나 힘겨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어직까지 풀리지 않는 몸을 이끌고 다시 총여학생회로 들어서니 그간 총회를 준비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결의 하나만으로 지워낸 총회였습니다.

따라서 성취점 또한 무수히 많으나 자칫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또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 꼼꼼하게 평가해서 경북대 총여학생회의 조직강화에 투무될 것은 철저히 창고 반성지점은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내고 발굴하여 대결 수 있는 경북대 여학일꾼이 된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학교 이후에 진행된 총회임에도 행사 준비 기간 새내기들의 모습을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동학교 이후 제대로된 평가와 후속사업으로 광범위 하게 묶어졌던 새내기들을 다시 의식수준의 발전정도를 타진해서 과학적인 조직화의 지점을 설정하고 그를 지도해 주지 못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단위 상황에 맞는 고민으로 무작위 다수 대중에 대해 총회 하나만으로도 의식화의 조직화의 지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 일꾼들만 실무에 허덕이는 모습이 아니었나 반성할 수 있다.

☼1 단위보고

인문대

과 여학생회 재건 사업은 어떻게?

사회대

사학대회는 ?

회장님은 ?

사범대

단위 학생회 골간은 아직까지 재정비를 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속에서 여학의 역할을 잘 가져가고 있는가?

새내기 조직화 정도는 ?

농대

간부들의 조직적인 생활은 어떻게 ?

회장님은 ?

정순이는 ?

※2, 중앙 보고

③, 대동학교 평가

④, 3,4월 평가

⑤, 5,6월 계획서

⑥, 부서별 세로모임 총화

⑦, 총회 평가서를 제출합시다.

전여대협 총회를 경북대가 받아안고 나서.....

< 총회 평가틀거리 >

- ~~-사상적인 영역에서~~
- ~~-조직적인 영역에서~~
- ~~-대중적인 영역에서~~

-단위 학생회의 전여대협에 대한 인식정도의 발전은?

-단위와 중앙과의 결합정도

단면 총회

-성과지점만 따로이 정리 하면

-반성지점만 따로이 정리 하면

16차 중앙운영위

이제는 완전한 봄인가 봄니다.

하지만 애국하는 우리 여학생들에게는 화사하게 민족복원을 물들이고 있는 벚꽃거리도 목련의 신비로움에도 한시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참 뜻과 가치를 일신의 안락과 제도가 쥐어준 틀 속에서 찾지 않고 진정 민중의 삶과 조국의 절절한 현실로 부터 배우고 깨달아가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청춘의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건설할 민족의 미래는 결단코 희망적임을 자부합니다.

또 한번 힘을 모아냅시다. 여학생회에 대한 사랑으로

대동학교가 5일 남았습니다.

준비되어진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같은 것 뿐입니다.

실지로 차근차근 점검해 봅시다.

안건

1 대동학교 점검

#단대 준비상황 보고

#중! 준비상황 보고

2 대동학교 1주일 목숨걸기 투쟁 제안

#여학생회 전체 조례 제안(아침 8:00 전체 조례 이후 8:30)

#집중해서 새내기들을 조직화하는 방도(하루 강의실 아지 5회 이상과 개인 명의 과 방 선전)

#우리 대외 일꾼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동해 낼 수 있는 방안

#과에서는?

3 총여학생회 출범식(6)

#기치 -조국의 다양한 딸로 청춘을 빛내고 나의 과에서부터 여성 자주화 실현으로 8천여학우의 빛나는 삶의 지표로 자존을 회복하자!

4 새로모임 ??????